

CJ제일제당, 일본 제치고 라이신 1위

CJ제일제당이 3억달러의 바이오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라이신(Lysine) 시장에서 일본기업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CJ는 사료용 아미노산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라이신 10만톤, 트레오닌(Threonine) 5만톤을 증설하고 트립토판(Tryptophane) 제품군을 추가로 출시할 방침이다.

CJ는 라이신 증설이 마무리되면 생산능력이 55만톤으로 늘어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25%로 확대됨으로써 Ajinomoto 등 경쟁기업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될 라이신을 비롯해 사료용 아미노산 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해 3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투자를 추진한다”며“ 다른 메이저의 증설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1위 등극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증설을 통해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는 등 시장장악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10/11>